

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 
전북연구원(T.063-280-7100/F. 286-9206)  
<http://www.jthink.kr>

▪ 문의 : 창조경제산업연구부 김시백 부연구위원  
(063-280-7131)

▪ 담당실장 : 연구실장 김보국 연구위원  
(063-280-7161)

보도시점 : 2016년 11월 18일(금) 16시부터

## 청년, '처지' 를 말하다

### 전북연구원 '청년종합실태조사 공청회'

- 청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청년들의 발언 자리가 마련됐다.
- 전북연구원(원장 강현직)은 18일 오후 2시 전북대에서 「전라북도 청년 종합실태조사 공청회」를 개최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했다.
- 강현직 원장은 “2010년 8.0%이던 청년 실업률이 지난해 9.2%로 증가됐다”며 “정부 정책을 뛰어넘는 지역 현실을 반영한 특화된 대책이 필요하다”고 강조했다.
- 이날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전북대 취업동아리 황금나침반 김강문 학생은 “좁은 취업문과 지역 대학이라는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달라”고 요구했다.
- 연구 책임을 맡고 있는 김시백 연구위원은 “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가 중요하다”며 “공청회에서 청년들의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말해 달라”고 부탁했다.
- 또한 전북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설문조사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,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하여 일자리·창업, 문화, 복지, 거버넌스 등 네 분야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.

- 이날 공청회에 전북대 취업동아리 김강문, 박진 학생과 송영남 전북대 교수, 고재욱 전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, 김명성 KBS전주총국 보도국 위원, 성지호 JTV 상무, 조동식 경제통상진흥원 경영기획실장, 조은주 나눔자리문화공동체 대표 등이 참가했다.

※ 관련 사진 오후 3시 송부예정입니다.